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묻는 종교 지도자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24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26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27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 두 아들의 비유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만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29 만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30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31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32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3 묵상하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영역인 성전에서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망가뜨리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게 한 것을 모두 뒤엎으시고(21:12-13), 허락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시니 말입니다(23절).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버지"라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았던 것입니다(30절). 예수님은 당장은 "싫다"고 했지만, 그 뒤에 뉘우치고 말씀을 따른 만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말로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멘!" 한 대로 살고 있느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말로만 하는 신앙은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오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와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순종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말뿐인 신앙을 넘어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녀,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나의 생각, 편견, 욕심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 ②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말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말뿐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 29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 30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 31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 32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다."

· 궁금 사전

- *맏아들: 첫째 아들
- *세리: 세금 걷는 일을 하는 관리로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 *창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 말씀 씨앗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어요. 큰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 가서 일했어요. 그러나 작은아들은 처음에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 두 아들 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은 바로 큰아들이에요. 말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느리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이예요.

3 말씀 새싹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두 아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 서로 어울리는 것을 찾아 선을 그어 연결해 보세요.

5 말씀 열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래에서 골라 O표 하고, 하나님께 항상 "네" 하고 대답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예요.

6 기도하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귀찮아도 "네"라고 대답하며 순종하겠어요.